

폐 회 사



윤 기 (尹 基)

제9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 실행위원회
공동대표 / 일본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이사장

유니벨재단과 함께 주최해 온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은 지난 2003년 제주도에서 제1회를 시작한 이래 매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개최해 오면서 올해로 아홉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한일 양국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질적향상 등에 관한 많은 연구성과가 발표되어 한일 사회복지사간의 교류도 깊어 졌습니다.

올해 “가족지원과 소셜워크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기능의 강화-”라는 테마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모습이 크게 변모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그에 따르는 지역사회기능 및 사회복지사의 중요성도 재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한사람의 소셜워커로서 가족문제를 생각할때 늘 부모 없는 고아 문제가 뇌리에 떠오릅니다. 지난 동일본대진재에서는 234명의 고아와 1,265명의 유아(遺兒)가 발생하였습니다. 눈을 세계로 돌리면 고아나 집이 없는 어린이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UN합동에이즈계획에 따르면 그 숫자는 1억 5,333만명에 달하며 해마다 40만명을 넘는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인이면서도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 생애를 바치신 제 어머니 윤학자의 마음속 외침은 고아가 적은 세계를 만드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지구의 미래를 짊어진 모든 어린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매우 당연한 인식을 사회에 뿌리 내리게 하여 고아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저의 어머니의 탄신10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2012년을 계기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포지엄 개최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는 유니벨재단의 이토 이사오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閉 会 辞



尹 基 (Tauchi Motoi)

第9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
共同代表／社会福祉法人 こころの家族 理事長

ユニバーサル財団とともに開いてまいりました「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は、2003年の第1回済州道での開催から始まり、その後、日本と韓国で交互に開催しながら今年で第9回目を迎えました。

その間、日韓双方において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や質的向上に関する多くの研究成果が発表され、日韓のソーシャルワーカー同士の交流も深まりました。

今年、「家族支援とソーシャルワーク ―家族のための地域社会機能の強化―」のテーマで行われたシンポジウムでは、社会の基本単位である家族のあり様が、大きく変貌した現代社会における問題点を浮き彫りにしました。また、それに伴う地域社会機能の働きやソーシャルワークの重要性をも再認識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私自身、一人のソーシャルワーカーとして家族問題を考えるとき、常に親のいない孤児の問題が脳裏を去来いたします。先の東日本大震災では234人の震災孤児と1,295人の震災遺児が生まれました。世界に目を向ければ、孤児やホームレスの子供たちは急増しており、国連合同エイズ計画によれば、その数は1億5,333万人にのぼり、毎年40万人余の子供たちの命が奪われております。

日本人でありながら韓国で孤児たちの養育に生涯を捧げた私の母、田内千鶴子のこころの叫びは、孤児の少ない世界を作り出すことでした。地球の未来を担うすべての子供たちが健やかに成長する権利を持つという、極めて当然な認識を社会に根付かせ、国際的な孤児への意識や関心を高めるための活動を母の生誕100周年に当たる来年、2012年を機に進めて行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について深い関心も持たれ、シンポジウム開催継続にご尽力されておられるユニバーサル財団の伊藤勲理事長をはじめ、関係者の皆さまに改めて感謝申し上げます。